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본문 : 로마서 13장 8~10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⁹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¹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보세요!

1.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2. 로마서 8장 6, 7절 말씀처럼 국가에 내는 세금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빛은 다 노력해서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3.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 줌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 성경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모두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6.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마태복음 22:37~40)
7. 우리의 행동으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할 대상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생각해보세요.